

제17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서울 예비회담 개최 제17차 한국대회 및 제9차 한중불교수행체험 일정 합의



▲ 제17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진관사 예비회담
제17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본 대회를 위한 예비회담이 3월 26일 서울 진관사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제16차 중국 해남도 대회의 「3국교류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다.
한국 측에서는 종단협 사무총장 홍과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총지종 총무원장 법등정사 등 9명 상임이사가 대표로 참가했다. 중국 측에서는 단장 학성스님(중국불교협회 수석부회장) 등 8명의 대표와 일본 측은 타찌 노리오 스님(일중한국불교교류협의회 상임이사)을 단장으로 8명이 참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7차 한국대회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환영만찬,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DMZ 지역 도라산 전망대에서 세계평화기원

법회를 병행하기로 했다. 국제학술강연회는 “불교사상에서의 평화의 실천 (부제-3국의 평화사상과 실천사례)” 주제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세계평화기원법회 개최장소로 선정된 도라산 전망대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DMZ 지역이다.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세계평화를 기원하며 17차 대회를 개최하게 된 의미를 되새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상징적 의미의 법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제9차 한중수행교류단 교류는 중국에서 8월 22일부터 29일 까지 40명 규모로 개최하기로 하고 합의서 체결하고 원만히 회향하였다.
북한산 진관사-김종열 기자

천태종 17대 총무원장 춘광 스님 취임 27일 구인사 설법전에서 사부대중 2천 여 명 참석



▲ 천태종 신임 총무원장 춘광스님 취임법회

천태종 제17대 총무원장 춘광 스님의 취임법회가 3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총무부장 월도 스님의 사회와 부책임부전 구스님의 집전 아래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봉행됐다. 법회에는 총지종 법등 총무원장, 조계종 일민 호계원장, 진각종 회정 총무원장,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쉘정(學誠) 스님 등 국내·외 불교지도자와 정관계 인사 등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천태종 도용 종정 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랫동안 선을 닦고 수행을 쌓아 그 공덕 인연 중생들에게 모두 회향하니 모든 신중들, 이 도량과 대중을 옹호하고 깨끗한 믿음과 기쁨으로 함께 따르게 하는구나. 대중들이여, 수행은 어려움에 묘가 있나니 그 자리에 관세음의 자비가 빛나고 있구나. 봄이 오면 천하의 풀이 절로 푸르니 한마음 한뜻으로 맑은 언뜻 괴워내어라”고 설했다.

이어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취임사에서 “천태종 총무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보니 그동안의 수행과 덕이 부족했음을 새삼 느낀다”며 “하지만 중징예하의 자상하신 보살됨에 힘을 얻고 종단 사부대중과 제방의 협력에 용기를 얻어 주어진 임기 동안 종단과 한국불교, 나아가 인류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자 한다”고 사원했다. 이어 스님은 ‘수행과 전법’으로 종단의 미래를 밝혀겠다고 전제한 후 이를 위해 “승가와 재가의 교육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완하고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고 중무행정의 기초를 설명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부회장 진각종 회정 총무원장 대독)은 축사에서 “춘광

스님께서는 천태종단의 주요 소임을 원력과 원만함으로 두루 거치셨으며, 불교전통문화에 남다른 관심으로 많은 후학들을 육성하셨다고 알고 있다. 문화시대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천태종의 문화적 기반을 누구보다 건실하게 다져오셨기에 스님의 원력과 실천은 천태종단은 물론 한국불교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리라 여겨진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중국불교협회 쉘정 부회장은 “천태종은 한국불교의 주요종단으로 중국불교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데 춘광 스님 취임 이후에도 함께 발걸음을 하고 싶다”면서 “불교문화·예술·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김용삼 총무실장 대독)과 이시종 총북도지사(신진선 행정부지사 대독), 새누리당 김무성 국회의원(부산 영도)이 춘광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취임 법회 말미에는 행사비를 절약해 단양 지역 불우이웃을 돕는 뜻 깊은 자리도 마련됐다.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2,000만원의 성금을 단양군 조성덕 사회복지협의회장에게 전달했다.

천태종 총무원장은 3월 31일 부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총무부장 월도 스님을 비롯해 교무부장 경혜 스님, 재무부장 월중 스님을 유임한데 이어 교육부장에 장호 스님, 사회부장에 설해 스님, 규정부장에 윤문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감사원 감사위원에는 행주 스님이 임명됐다. 신임 총무원장 춘광스님은 서울 관문사 주지를 겸임한다.

단양-구인사 김종열 기자

진각종 「진각문화국제체험관」 신축 지진불사 봉행 교육관 및 지하주차장 동시에 기공

진각종 총무원장은 3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진각종 총무원에서 진각문화국제체험관 등 신축을 위한 지진불사를 봉행했다. 신축하게 될 건물은 진각문화국제체험관과 교육관 등 2개 동과 지하주차장 공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진각문화국제체험관은 국고보조금 30억 원을 포함해 70억 원을 들여 부지 3,969.6㎡에 연면적 4,963㎡의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축된다. 교육관은 14억 원을 들여 부지 530㎡에 연면적 1,116㎡의 지상 3층 규모로 세워진다.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162대의 차량을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공사에는 36억 원이 투입된다.

진각문화국제체험관은 국제불교기구의 교류, 연대를 통해 불교문화의 장·단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불교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하는데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신축된다. 아울러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폭넓은 불교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문화와 세계불교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교감하는 불교세계화의 장(場)을 형성함은 물론 세계불교문화교류를 통해

다문화사회에서 소통의 기반을 다지고, 종단과 국내의 각종 불교행사에 단기 체류형 숙소 및 수행공간으로도 활용된다.

교육관은 탐주유지원의 일부 기능을 대신하며 종단의 각종 교육불사를 실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공간으로 조성된다. 지하주차장 공사는 기존의 지상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전환해 조정 등을 마무리함으로써 지상부지의 미관개선효과를 꾀할 목적으로 공사가 추진된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조계종 아름다운동행 북녘 어린이를 위한 자비나눔 걷기대회 개최 3월 29일 오전 11시. 파주 임진각 일대

영양결핍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북녘의 어린이들에게 영양식과 의약품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북녘 어린이를 위한 자비나눔 걷기대회”가 3월 29일 오전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아름다운동행이 주관한 이번 걷기대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원행스님, 이인재 파주시장, 이재훈 어린이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불자와 시민 등 1000여명이 참가했다.

북녘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 ‘도담도담’ 선포식을 겸한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 임진각 평화의 종 타종을 시작되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예로부터 우리 어머니들은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라도 내 아이 남의 아이를 구분하지 않았다”면서 “어린이는 남과 북이 따로 없이 우리 모두의 희망이자 통일시대를 열어갈 한반도의 미래”임을 강조했다.

행사 2부에서 참가자들은 민통선 철책선길을 따라 걷다 통일대교 복단을 거쳐 다시 임진각으로

돌아오는 5km 구간을 거닐며 통일을 염원하고 민족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했습니다.

이날 함께 민통선 철책선길을 걷은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은 참석하신 어린이들에게 합장주를 손목에 걸어주며 격려했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5세 미만 북녘 아동 10명 중 3명이 영양부족과 발육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영양식과 의약품 지원을 위해 금민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국 사찰에서 모금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인터넷 총기종합 www.chongjinews.com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개천사	강순시	3/18	10,000
관성사	황성녀	2/28	10,000
관성사	민선	3/24	20,000
관음사	신막심	3/21	10,000
기로해정		2/27	10,000
기로대관		3/24	10,000
기로대자행		3/24	10,000
기로밀공정		3/24	10,000
기로법수원		3/24	10,000
기로법장화		3/24	10,000
기로법지원		3/24	10,000
기로불멸심		3/24	10,000
기로사홍화		3/24	10,000
기로상지화		3/24	10,000
기로수증원		3/24	10,000
기로총지화		3/24	10,000
기로선도원		3/24	10,000
단음사	법연지	3/17	10,000
밀인사	정정희	3/3	5,000
밀인사	무명씨	3/20	10,000

밀행사	석우성	3/14	20,000
벽룡사	양정현	3/4	10,000
벽룡사	양지현	3/4	10,000
삼밀사	하명순	3/17	10,000
선립사	심지장	3/18	10,000
성화사	우담바라회	3/13	70,000
수인사	김봉기	2/26	10,000
수인사	무명씨	3/5	10,000
수인사	정순득	3/13	10,000
승천사	원봉	3/17	10,000
승천사	지선행	3/17	10,000
실보사	이순옥	3/4	10,000
실지사	정경자	2/26	10,000
실지사	송우섭	3/4	10,000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2/26	30,000
	하미영	2/26	10,000
	이지민	2/26	10,000
	최복란	2/27	10,000
	구미자	2/28	10,000

서선숙	2/28	10,000	
이준동	3/25	10,000	
서선숙	3/25	10,000	
김지연	3/25	10,000	
김지영	3/25	10,000	
정각사	김문수	3/10	10,000
정심사	원정연	2/28	30,000
지인사	승효제	3/17	10,000
지인사	지성	3/17	10,000
지인사	허성동	3/24	30,000
초록어린이집			
	오현주	2/28	10,000
	이은주	3/10	10,000
	이상은	3/24	10,000
	황화성	3/25	30,000
	이은주	3/25	10,000
총지사	법등	3/3	30,000
총지사	손경옥	3/15	14,688
혜정사	정은선	3/3	10,000
화음사	강순란	3/4	10,000

흥국사	지정	3/17	20,000
	자성신	3/13	20,000
	김갑선	3/19	10,000
	정희연	3/21	20,000

2월26일부터 3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특별기고

로마로 팔려간 조선인 노예를 기억하자

실크로드의 시발지인 이탈리아 로마. 지금부터 4백여년 전에 일본인에 의해 로마까지 팔려간 조선인 노예 안토니오 피레아의 실화가 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피렌체출신의 무역상인이자 토스카나 공국의 공작자였던 프란체스코 까를레티가 저술한 [나의 세계일주기]에 기록되어 있다.

1701년에 피렌체에서 발간된 이 책에 의하면, 정유재란이 한창이던 1507년에 부친과 함께 일본 나가사키항에 입항한 그는 30년에 해당하는 12 스키우드에 조선인 노예 4명을 매입한다.

그리고 이듬해에 그곳을 출항 한 까를레티는 부친을 여의고 네델란드 해적에게 납치되는 등의 온갖 시련 끝에 1606년 7월 12일에 조선인 노예 1명과 함께 고향인 피렌체에 도착한다. 그리고 그는 조선인 노예에 대해 이러한 기록으로 마무리 짓는다. "한 사람은 지금 로마에 살고 있으며 안토니오 피레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자칫 역사 속에 영원히 묻힐뻔한 이 책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알려진 것도 대단히 드라마틱하다.

성공회 제3대 조선교구장인 트롤로프 신부가 동양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1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1930년 11월에 일본 고베항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해 트롤로프 신부가 갑자기 목숨을 잃게 된다. 얼마후 일본 역사학자 아마구치가 경성 정동 교회에 방치되어 있던 방대한 장서를 열람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때 안토니오 피레아의 내용이 언급된 까를레티의 저서 [나의 세계일주기]를 발견한 아마구치 박사는 자신의 논문 "임란중 포로의 행방-조선인노예 매매의 예"에서 안토니오 피레아의 존재를 최초로 발표한다. 이렇게 해서 조선인 노예무역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금년은 한국-이탈리아 수교 1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 이다. 그래서 5월에 로마심포니가 내한공연을 하고, 가을에는 한식페스티벌이 밀라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경북은 작년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경주세계엑스포의 열기를 실크로드의 출발지인 로마까지 전개할 좋은 기회를 맞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 4백여년 전에 이탈리아 피렌체를 거쳐 로마까지 당도 한 실존인물인 안토니오 피레아의 드라마틱한 스토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당시 유럽의 공중화가었던 루벤스가 그린 초상화의 제목이 [코리엔텐-안토니오 피레아]라는 사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문화창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스토리텔링과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다양한 문화콘텐츠개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17C에 루벤스가 그린 채색 드로잉 작품이 1980년 대에 영국 크리스티 경매장에 최초 출품되었을 때, 이 그림의 제목은 중세시대 태국의 관리를 의미하는 "삼대사"였다. 그후 한국 복식전문가의 고증에 의해 "한복 입은 남자"로 바뀌었고, 이 그림을 매입한 미국 LA의 유명한 석유재벌인 폴게티의 재단에서는 제목을 최종적으로 [코리엔텐-안토니오 피레아]로 확정했다.

이처럼 기구한 스토리를 간직한 놀라운 그림의 주인공이자, 대단히 드라마틱한 책 속에 소개된 유일한 조선인인 안토니오 피레아를 통해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일본인에 의해 자행된 조선인 노예무역의 역사적 진실이다. 이제 날조된 독도의 역사를 주장하고 조선인 위안부의 존재마저 부정하는 일본 아베정부를 향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겼다. 그것은 임진-정유재란 기간 중에 일본인들이 저지른 조선인 노예무역의 만행을 널리 알리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국사교과서에 수록해서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켜야 하는 일이다.

또한 4백여년 전에 실크로드의 동쪽 끝인 한반도에서 태어나 실크로드의 서쪽 끝인 로마까지 건너간 역동적인

실화를 감동적인 문화콘텐츠로 개발하는 일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그와 아울러 4백여년 전에 안토니오 피레아와 함께 마카오, 인도, 유럽 각국으로 팔려가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속박 당한 채 짐승 같은 압제와 속박 속에서 살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조선인 노예들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일도 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3월 27일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PM2시부터 진행되는 "이탈리아로 팔려간 조선인노예 영령 추모행사"에서 사찰학춤을 통한 천도의식을 치르기로 하였다. 미국 LA돌비극장에서 개최된 제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작품상을 수상한 스티브 맥퀸 감독의 영화 "노예 12년"에 등장하는 흑인 노예들 만큼이나 엄청난 폭력과 굴욕의 삶을 살았을 우리 선조들의 사무치는 한과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한다. 또한 실크로드의 시대에 경주의 대외무역항이었던 울산도 정유재란 기간 중에 울산왜성에 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왜군들에 의해 우리의 수많은 선조들이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간 사실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단재 신채호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다.

백성스님(통도사 재적)

불교 오피니언 칼럼

잘못된 기도 (祇禱)

일생(一生)을 통(通)하여 부귀영화를 흠뻑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몇이나 될까? 선진국(先進國) 국민은 후진국 국민보다 일생동안 행복한 시간이 많을까? 태어날 때부터 귀(貴)한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정말 오랫동안 행복을 누리고 살아 갈수 있을까? 모르긴 해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살다보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直面)하게 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활이다. 대개의 경우 살림이 넉넉하고 가족이 건강하고 큰 근심이 없는 경우 밤을 새워 철야기도를 하거나 삼 천배 절을 하는 등 깊은 신심을 내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대학입시 또는 큰 어떤 소원성취를 목적(目的)으로 우리는 육체적 고통을 넘는 기도에 올인하는 불자(佛子)를 흔히 볼 수 있다.

약8시간이 소요되는 3천배를 하기도 하고,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로써 소원성취를 위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도전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조상을 위한 천도 기도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기도는 우리 중생이 바라는 소원성취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정각(正覺)을 이루기 위한 수행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가끔 있는 경우이지만 안타까운 기도를 하는이가 더러 있다.

한 가정의 경제적 풍요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누구나

바라는 바이다. 자본주의의 병폐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가난을 대물림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슬퍼지는 이유이다. 갈수록 상류층으로 가는 사다리가 적어진다라는 것이다.

이때 평범한 우리는 기도로써 가정의 행복을 갈망하는 것이다. 가정의 행복을 위한 경제적 조건의 비중이 크다. 그런데 현대 물질만능주의 사상이 팽배한 요즘은 가장(家長)이 실직하거나 또는 수입이 적은 가정은 대개의 경우 가족으로부터 대우 받지 못 하는것이 현실이다.

더욱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는 더욱 그 정도가 더할 것이다. 급기야 가정으로서의 대우는 커녕 아내로부터 불륜과 무시당하기 십상인 것이다. 이때 아내는 경제적 회복을 위해 손수 일거리를 찾아나서고 급기야 주부인 아내가 가장이 되기도 한다. 졸지(猝地)에 가장이 된 아내는 친구의 인도로 인연 있는 사찰에서 난생처음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3천배, 새벽기도, 철야기도 등 정말 힘든 나날의 연속이다.

또한 기도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기도는 긍정의 마음을 키워준다. 기도는 무명을 밝히는 작업이다. 기도를 한다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직장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기도는 우리중생의 마음 거울을 닦는 작업이다.

우리 마음 거울에 먼지가 투성일 때 사물을 바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기도는 번뇌의 마음,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을 평화와 미소와 용서와 배려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이다. 기도는 유한의 능력을 무한의 능력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참 기도는 유류복과 무류복을 동시에 성취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어떤 여성 불자는 남편의 무능으로 가정의 경제가 어렵고, 가정의 불행이 전적으로 남편의 잘못이라 생각한다.

이런 여성 불자의 기도는 참 불자의 기도가 아니다. 이 세상 어느 남자가 무능해지고 싶은 자가 있을까? 부부는 100년동안 고티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어느 한 쪽의 무능과 잘못은 없다.

서로가 칭찬하고 부족한 부분을 배려할 수 있는지가 참 불자이며 보살이다. 내가 상대보다 낫다는 상(相)을 가지고 우리가정의 불행을 상대의 잘못이라는 전도몽상(顛倒夢想)인 기도는 성취하기가 매우 어렵다. 기도의 성취는 내 자신의 마음의 평화에서 출발 하는것이 참 기도이다.

타인을 시기하거나 나의 불행이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기도는 기도의 참의미를 모르는 불자이다. 타인을 원망하거나, 시기하는 기도는 무명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며 마음의 평화가 없기에 정견을 이룰수 없다.

정견이 없는 사물을 바로보지 못하는 불자는 하는 일이

어긋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참 불자는 약자를 배려 할 줄 알고, 자타일시 성불도(自他一時成佛道)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금강경 가르침대로 나의 자비로운 공덕은 항상 내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부부가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할 때 그 가정은 평화와 행복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다.

부처님 최대진리의 결정체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의 중심사상인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바로 마음심(心)에 있듯이 중생의 마음을 잘 쓰는 자가 바로 붓다의 길을 가고 있는 참 불자이다.

또 어떤 불자는 간혹 백화점식 기도를 하는 불자가 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기도를 동시 다발적으로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나 기도는 집중을 요 하는 것이 중요한데, 좋다하는 여러 가지 경들을 독송하거나, 여러 가지 진언을 동시에 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도방법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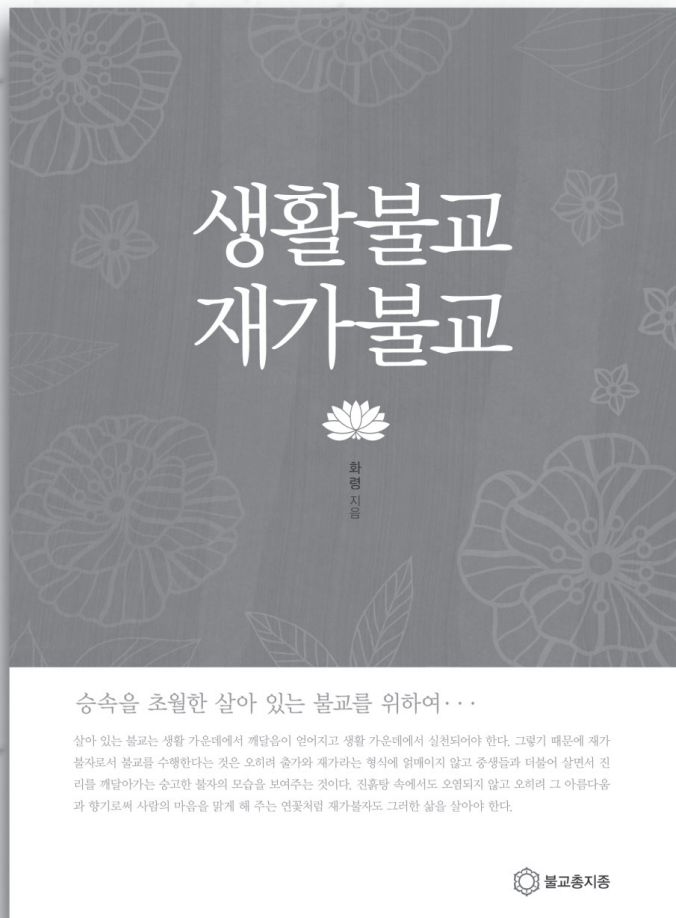
어떤 불자는 요즘을 사찰에서도 돈 많은 사람만 대우 받을 수 있다고 한탄한다.

그러나 정법시대, 상법시대가 지난 말법시대인 이 시대에서도 참 스승은 조금만 눈을 크게 뜨면 우리주위에 많이 볼 수 있다. 참선하고, 3천배하고, 철야기도 하는데 땀 뉘를 수건 한 장이며 충분하다. 진정한 기도를 위한 공간이 우리주변에 충분한 시대에 살고 있음은 다행이며 행복이라 생각해야 한다.

사찰은 재물을 축적하는 곳이 아니다 여유 있는 불자가 조금 넉넉하게 공양 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다. 부처님께서 45년간 한결같은 중생제도를 위한 헌신적인 행정에 단 한 푼의 재물(財物)을 받았다는 기록을 본적이 있는가?

안국법사(부산광역시)

생활불교에 대한 사상적 배경과 실천방향을 제시한 책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지향하는 현대인의 필독서



승속을 초월한 살아있는 불교를 위하여

생활불교 재가불교

화령 저 | 불교총지중 발행
정가 10,000원 | 법보사가 6,000원 (10권 이상)

“살아 있는 불교는 생활 가운데에서 깨달음이 얻어지고 생활 가운데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삼국유사에서 본 밀교승(密敎僧)

172호 6면에서 계속

1. 신라 해통국사

신라로 돌아와 국가의 재난과 왕실의 병을 다스려 국사가 되다.

용은 해통이 자기를 좇아낸 것을 원망하여 본국의 문인림(文仍林)에 와서 인명을 더욱 해쳤다. 이때에 정공(鄭恭)이 당에 사신으로 갔는데 해통을 보고 일러 말하기를 “법사가 쫓은 독룡(毒龍)이 본국으로 돌아와 해(害)가 심하니 빨리 가서 그것을 없애 주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정공과 함께 인덕(麟德) 2년 을축에 본국으로 돌아와 그것을 좇아버렸다.

용은 또 정공을 원망하여 이에 버드나무로 변하여 정공 집의 문 밖에 나왔었다. 정공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만 그 무성한 것을 기려서 매우 사랑하였다. 신문왕(神文王)이 죽고 효소왕(孝昭王)이 즉위하여 산릉(山陵)을 닦고 장사지내는 길을 손질하였는데, 정공의 버드나무가 길을 가로막아 유사(有司)가 베어 버리려 하였다. 정공이 화를 내며 말하기를 “차라리 내 머리를 베지 이 나무는 베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유사가 이를 아뢰니 왕이 크게 노하여 사구(司寇)에게 명해 말하기를 “정공이 왕화상(王化相)의 신술(神術)을 믿고 장차 불손한 일을 도모하려 하여, 왕명을 업신여기고 거역해서 내 머리를 베라고 하니 마땅히 좋아하는 바에 따를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그를 주살하고 그 집을 물어버렸다.

당나라 공주 병의 원인이었다던 해통은 해통 국사의 주역으로 공주의 몸에서 빠져 나온 다.

해통의 신력에 앙심을 품은 교룡은 스님의 조국인 신라로 숨어들어 백성들에게 해악을 준다. 당나라로 사신을 온 정공은 독룡의 해악을 해통에게 알린다. 해통은 서기 665년 신라로 돌아온다. 해통은 문인림의 독룡을 다시 쫓아버린다. 하지만 독룡의 앙심은 더욱 깊어 이번에는 당나라에 있던 해통 스님에게 독룡의 해를 전한 정공의 집 문앞의 버드나무로 숨어든다. 효소왕이 즉위하자 선대왕의 장례를 치르는 길의 방해가 되는 정공의 버드나무를 베려한다. 정공은 자신이 아끼는 버드나무를 베려하면 자신의 목을 베라 한다. 이에 격노한 효소왕은 정공을 죽이고 버드나무를 베어버린다. 이는 오랜 기간 버드나무에 깃들어 있던 독룡의 계략으로 해통을 불러들인 정공에 대한 복수였다.

조정에서 의논하기를 “왕화상이 정공과 매우 친하여 당연히 꺼리고 싫어함이 있을 것이니 마땅히 먼저 그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감병을 시켜 그를 찾아 잡게 하였다. 해통은 왕망사(王望寺)에 있었는데 감병이 오는 것을 보고 지붕에 올라가서 사기병과 붉은 먹은 문헌 붓을 가지고 소리치기를 “내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병의 목에 한 획을 긋고 말하기를 “너희는 마땅히 각자의 목을 보아라”라고 하니 그것을 보니 모두 붉은 획이 있어서 서로 보고 놀랐다. 또 소리쳐 말하기를 “만약 병의 목을 자르면 응당 너희 목도 잘릴 것인데 어찌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들이 도망와서 붉은 획이 있는 목을 왕에게 보이니 왕이 말하기를 “화상의 신통력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바 이겠는가”라고 하고 이에 그를 내버려 두었다.

신라왕궁은 정공을 주살하고 그와 교분이 두터운 해통을 두려워하게 된다. 신하들은 해통도 없애야 훗날을 기할 수 있다고 왕에게 주청한다. 이때 해통은 왕망사(지금의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왕망사라 적인 기와가 발견되어 왕망사의 위치를 추정 할 뿐이다. 이곳은 석장리라 불리는데 신라의 대표적인 조각승이자 밀법승인 양지 스님의 석장사 바로 옆이다.에 주석하고 있었다. 왕은 군사들을 보내 스님을 죽이려하자 붓과 호리병으로 신통을 보여 군사를 물리친다. 군사들은 왕에게 해통 스님의 신통력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없다고 간하고, 그를 내버려 둔다.

왕녀(王女)가 갑자기 병이 들자 조서를 내려 해통이 치료하게 하였는데 병이 나아지니 왕이 크게 기뻐하였다. 해통은 인하여 말하였다. “정공은 독룡(毒龍)의 해를 입어 죄 없이 나라의 형벌을 받았습니.” 왕이 그것을 듣고 마음으로 후회하고 이에 정공의 처자를 면죄하고, 해통을 국사(國師)로 삼았다.

용은 이미 정공에게 원수를 갚고 기장산(機張山)에 가서 웅신(熊神)이 되었는데 해독을 끼치는 것이 더욱 심하여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했다. 해통은 산 속에 가서 용을 깨우쳐 불살게(不殺戒)를 주었고, 웅신의 해가 이에 그쳤다.

해통의 신통력은 신라인들의 큰 버팀목이 되었다. 왕녀가 갑자기 병이 들자 왕은 정공의 사건에 대해 해통국사에게 사과하고 왕녀의 병을 고쳐 주기를 간청한다. 정공에게 복

수를 한 독룡은 기장산으로 숨어들어 웅신이 되어 백성들을 괴롭힌다. 스님은 자신과의 깊은 인연을 가진 독룡을 죽이기를 포기하고, 독룡을 교화 하기로 한다. 스님의 신통한 주력과 설법에 감동한 독룡은 스님에게 불살생계를 받고 해악을 멈추었다 한다. 이는 해통국사의 법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자신과 끝없는 대립으로 많은 이들에게 해악을 끼친 독룡을 부처님의 법으로 귀의시키고 불자로서 계율을 지키는 웅신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이는 해통의 교화 능력을 단편적으로 말해 주는 근거가 된다.

제6 신주(神呪第六) 해통항룡(惠通降龍) “신라로 돌아와 교룡을 물리치고 국사가 되다” 조

신문왕의 병을 고치고 억울한 신하의 원한을 풀어준다

처음에 신문왕이 등창이 들어 해통에게 치료해주시기를 청하니 해통이 와서 주문을 외우자 즉시 나았다. 이에 말하기를 “폐하가 예전에 재상의 몸으로 장인(臧人) 신충(信忠)을 잘못 판결하여 종으로 삼아서 신충이 원한을 가지고 윤회하여 보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등창도 또한 신충의 탈이오니 마땅히 신충을 위해서 가람을 창건하고 그 명복을 빌어서 그것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이 심히 그렇다고 생각하여 절을 세우고 이름을 신충봉성사(信忠奉聖寺)라고 했다. 절이 완성되자 공중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났는데 이르기를 “왕이 절을 지어 주셨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 하늘에 태어났으니 원한은 이미 풀렸습니다”라고 하였다. 어떤 책에는 이 사실이 진표(眞表)의 전기(傳記)에 실려 있으나 잘못된 것이다. 인하여 그 노래를 부른 곳에 절원당(折怨堂)을 지었는데 그 당(堂)과 절이 지금도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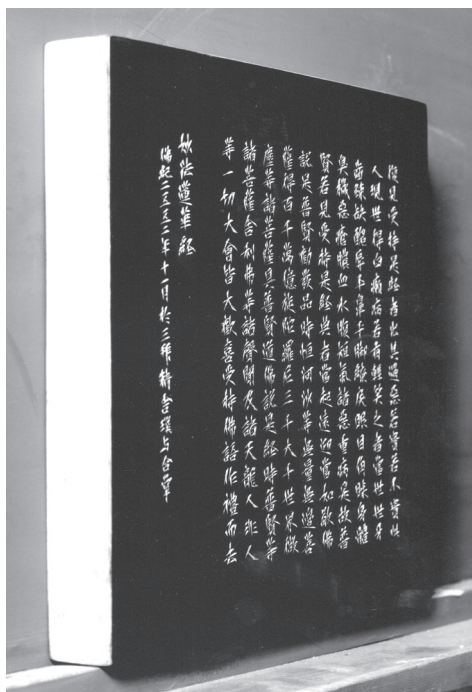
제6 신주(神呪第六) 해통항룡(惠通降龍) “신문왕의 병을 고치다” 조

해통 국사의 신통력은 왕이 재위 하면서 무심히 겪은 원한을 풀어 신하와 백성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한다. 삼국유사의 이야기는 독룡이라는 스님의 원적을 설정하고 끝없는 싸움을 벌이지만 결국에는 불법으로 교화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로 만드는 능력이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주력으로 재산을 막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이다. 부처님의 참가르침을 실천하여 업장을 소멸하고 열반의 길로 들어서게 해통 국사는 그 법력을 발한 것이다.

자료출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최남선<삼국유사>,홍법사 <불교대사전> 편집 정리 =김종열 기자

대구 팔공산 동화사 서예 『법화경』 사경 대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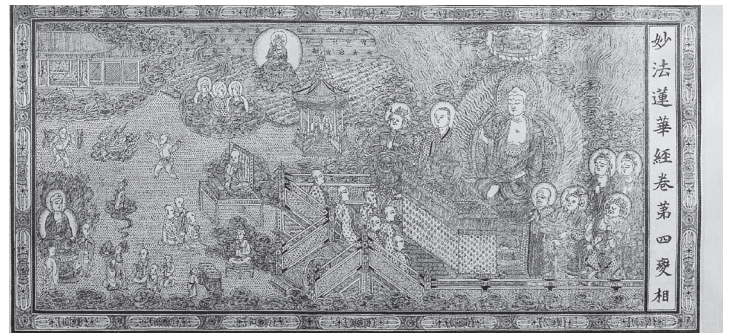
법화경 서예 및 서각 작가 10명의 대표 사경 전시



▲ 박여김진희 작 「법화경 서각」

전국의 법화경 사경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4월 5일부터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대구 팔공종림 동화사 통일약사대불전에서 서예 법화경 대축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법화경 사경 수행이 전 세계로 퍼져 평화로운 불국토가 되기를 서원하며 열린다. 사경은 불경을 한 자 한 자 정성으로 옮겨 적는 수행의 한 종류이다. 인내가 어려웠던 옛날에는 귀한 부처님 말씀을 받아 지니기 위해 경을 옮겨 모시는 자제를 수행으로 보았다. 또한 나라가 어려운 위기에 처하면 국난 극복의 영원으로 대장경을 간경하거나, 사경으로 부처님의 가지를 얻고자 했다. 법화경 사경을 통한 수행은 현재 1백 만 명의 사경행자들이 각 사찰마다 사경에 정진하고 있다. 법화경은 약 7만 자의 한자로 구성 된 경전이다. 화선지 전지 한 장에 약 700자씩을 쓴다면 100장에 달하는 대작이 만들어 진다.

그 만큼 한 작품을 완성하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서체로 형태로 사경한 서예작품과 서각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에 참가하는 용현 이윤용 선생은 “사경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처음 사경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 자신도 모르게 많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사경을 통해 업장이 녹아내리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는 가슴과 머리가 가벼워지고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한답니다.”며 사경을 통한 부처님의 가치를 체험했다. 서각 작품을 출품한 박여 김진희 선생은 “사경은 제 작품 세계의 새로운 도약의 장이었습니다. 그간은 기존 고사의 작품을 주로 서각하였으나,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경전을 서각하는 것 자체가 제 자신의 업장 소멸과 불법의 영원한 흥포를 위한 수행으로 생각합니다.”며 법화경 서각의 의미를 말했다.



▲ 용현 이윤용 작 「묘법연화경 변상도」 이번 전시회는 4월 5일부터 10일까지 대구 팔공산 동화사 통일약사대불전에서 열린다. 개막초대전은 4월 6일 12시 30분에 열린다. 김종열 기자

인터넷 TV **우리불교** W-TV

"촬영합니다" 촬영영상은 우리불교신문 W-TV(wooribulgyo.com) 및 daum.net(다음) 포털사이트에서 **평생 보실수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CD · DVD로 영가제작해 드립니다

순천 선암사 주지 진산식을 촬영한 후 본사가 제작해 납품한 CD 및 DVD 모습 (02) 735-2240 / 010-2714-5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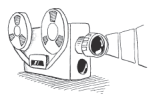
www.mindplusbook.com

생각 더하기

TEL 02-735-2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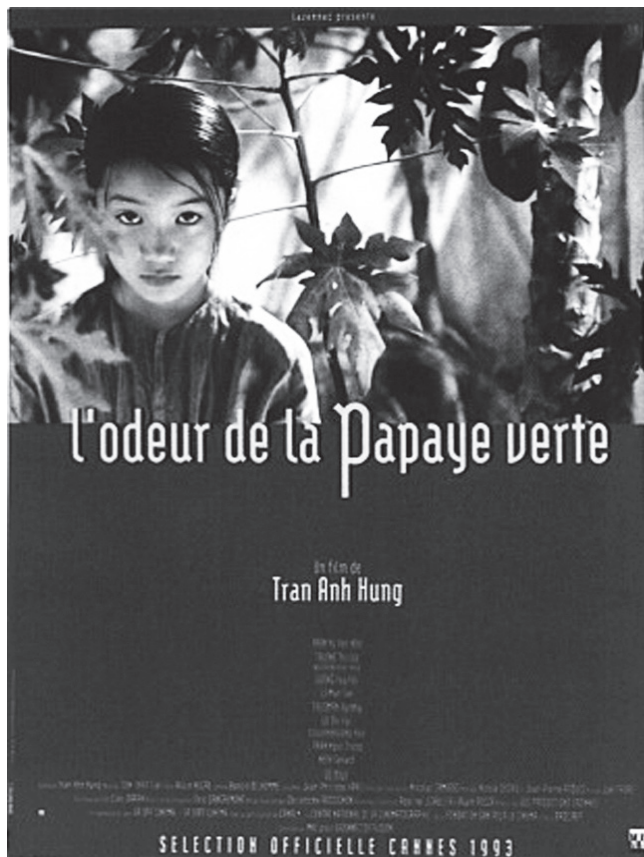
1. 기획, 분담, 자비, 인쇄, 출판 등 출판의 모든 형태를 수준있는 편집인들과 디자이너들이 각 분야에서 성심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수준있는 대필·윤문작가 보유
3. 법보시용 서적 제작

법어집, 법문집, 찬불가집, 각종 경전류 및 시집, 수필집.



영화에서 불교보기 <33>

현재에 머물라 ... 무이식(式) 행복론 <그린 파파야 향기>



와 여동생과 같이 살다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식모살이를 하러 멀리 타향에 왔지만 어두운 구석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

다. 주인집에서 첫날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창밖으로 보이는 그린 파파야 향기를 맡기 위해 고개를 내밀고 흠뻑거리는 무이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행복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를 떠나는 외로움이나 슬픔 같은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고된 노동에 대한 불만이나 두려움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소풍을 나온 아이처럼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음속에 행복이 충만한 소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이든 가정부를 도와 채소를 부는 일도 그린 파파야를 잘라 샐러드를 만드는 일도 무이에게는 재미있는 일상이었습니다. 거기다 친구도 많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팽배닥을 기어가고 있는 개미들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직접 키우는 귀뚜라미도 좋은 친구고,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개구리를 구경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친구도 있습니다. 주인집 2층에서 불공만 드리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노마님을 사랑하는 어떤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의 사랑 얘기를 들어주고, 또 할머니를 만날 수 있도록 2층까지 안내하면서 낯선 할아버지의 따뜻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무이는 주인 집 식구들이나 나이든 가정부보다도 이렇게 낯선 사람에 빠진 할아버지나 곤충과 동물들과 교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곤충과 할아버지는 훨씬 사랑에 충만한 세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며 언제나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과 교감을 나누는 건 무이가 사랑과 행복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이 이외의 사람들은 불행하며, 현재가 아닌 과거나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집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안주인은 따뜻한 사람으로 무이에게도 다정하게 대하고, 사람들과 친절하지만 행복한 편은 아닙니다. 남편은 평생을 한량으로 사는 사람으로 집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잠옷 바람으로 야기나 두드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돈을 갖고 집을 나가서는 몇 년씩 돌아오지 않는 삶을 반복했습니다. 그 또한 삶에 불만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집 할머니는 2층에 있는 자기 방에서 결코 나오지를 않습니다. 죽은 남편과 사랑하는 손녀의 영정이 모셔진 불당에서 하루 종일 불공드리는 게 할머니가 하는 일인데 할머니 또한 과거에 얽매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에는 아들이 셋 있는데 큰 아들은 이미 장성해서 자기 세계가 있으므로 집안의 분위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지만 작은 아들과 막내는 좀 애들이 빼돌려져 있습니다. 막내는 그 불만을 가정부인 무이를 괴롭히는 것으로 풀려고 했습니다. 무이가 청소하고 있는 마룻바닥에 오줌을 싸거나 물을 쏟는다가나 화병에 개구리를 몰래 숨겨두었다가 무이를 놀라게 해서 화병을 깨뜨리게 해서 곤란하게 만든다가나 하는 식으로 사사건건 무이를 괴롭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는 죄 없는 개미에게 쫓겨나 떨어뜨려 몰살시킨다가나

그것도 직성에 안 풀리는지 손톱으로 마구 짓눌러 죽이거나 새총으로 새나 개구리를 잡는다가나 하면서 마음속의 울분을 해소하려했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든 둘째는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 하는 엄마에 대한 연민과 집 나간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을 엄마 탓으로 돌리는 할머니에 대한 원망을 이런 식으로 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행복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주인마님이 좋은 분이긴 하지만 가정부로서 일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닌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기에 쌀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니까 가정부는 더욱 먹을 게 귀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개구쟁이가 있고, 다들 불행하고, 이런 집에서 엄마와 동생과 헤어져 어린 가정부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건 무이가 평범한 애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무이는 자기 내면의 평화와 행복의 힘이 견고하기에 주변에서 어떤 풍파가 닥쳐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이가 주변 상황과 별개로 행복한 아이라는 걸 알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집 아저씨가 집 안에 있는 돈을 모두 가지고 집을 나가 버렸을 때 나이 든 가정부와 무이가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무이는 채소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가정부가 "면 두 필 밖에 없는데 쌀도 다 떨어져 가고 걱정이구나" 하면서 주인집의 이런저런 어려움을 들려주면서 주인집을 걱정했습니다. 주인집에 대한 걱정은 또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기도 했습니다. 주인집 형편이 어려워지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쌀이 떨어지면 굶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미래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이 걱정으로부터 무이 또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이는 이 걱정에 결코 끼어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이는 늙은 가정부의 뉘드리에 전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무이는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여전히 행복한 표정으로 채소에 물을 뿌리고 귀뚜라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두꺼비를 바라봤습니다. 경제적 궁핍이나 우울한 집 안 분위기나 이런 것에 동화되지 않고 고유의 행복을 만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이가 아이기 때문에 이렇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이집의 어린 아이들은 집안 분위기에 휩쓸려 울거나 화를 내는 식으로 나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봐도 무이의 이런 초연한 태도는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이는 이 집에서 독자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다들 생명력을 잃고 불행한데 오직 충만한 생명력을 갖고 있으면서 유난히 빛나는 무이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주인집 할머니와 가장 비교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밖에 한 발짝도 나오지 않으면서 오직 불공만 드리는 할머니는 현재를 사는 인물이 아닙니다. 과거에 얽매어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남편과 손녀에게 얽매어 있습니다. 또한 존재하지 않는 관념의 세계에 머무는데 결코 행복한 모습은 아닙니다. 반면에 무이는 언제나 현재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린 파파야 향기를 맡고, 발가락으로 개구리 등의 감촉을 느끼고, 프라이팬에 채소를 볶고, 마루 바닥을 닦고, 이 모든 것들은



현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무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직 현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불행은 현재를 사는 사람에게서는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의식이 머무는 한 불행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쌀이 떨어질 걸 걱정하는 건 미래에 의식이 가 있는 것이고, 죽은 남편과 손녀를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의식이 가 있는 것이고, 무엇이든 걱정을 한다는 건 의식이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다는 뜻인데, 불행은 이렇게 의식이 현재를 벗어났을 때만 침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이는 언제나 현재에 존재했으므로 행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이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무척 행복한 영화로 보이는데 이유는, 무이가 행복한 사람이고, 영화는 무이의 시선에서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이가 행복한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고, 언제나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준 영화였습니다. 보고나면 누구나 행복 한 마음 안게 될 것 같기에 적극 추천합니다.

김은주(자유기고가)

가족의 마음으로 어려운 법률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변호사 하동길

종합법률사무소

상담전화 02.596.4600

부동산, 세무, 형사, 민사, 가사, 특허 전문, 개인회생, 파산 특별 상담

※ 충지종 교도 특별 상담

변호사 하동길 종합법률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1715-3 동구빌딩 201호

불교충지종 교우들에 한해 10~20% 할인

림플란트치과

LIMPLANT DENTAL CLINIC

원장 임경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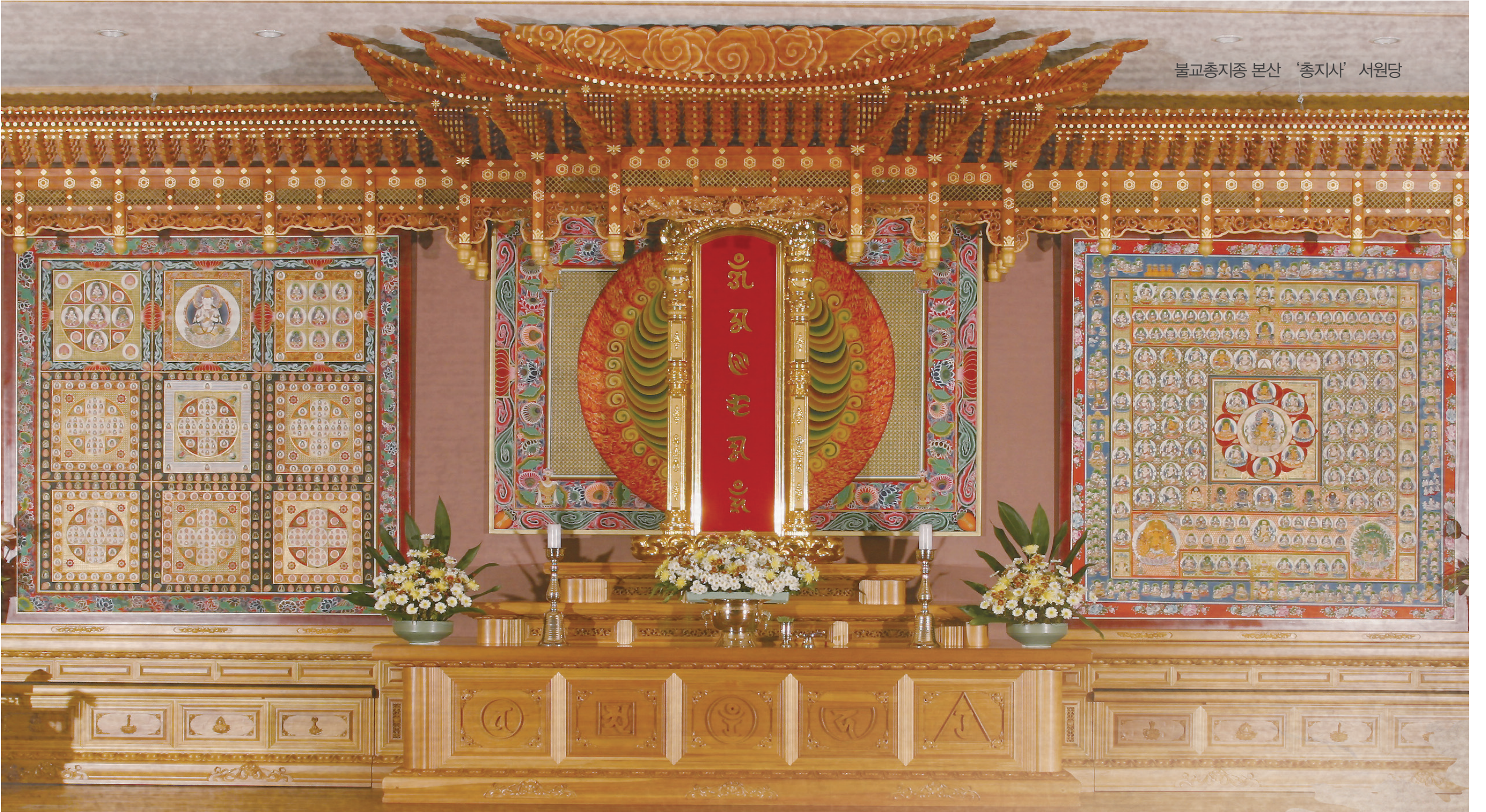
미국 보스턴대학교 임플란트학과 연수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 수료(임플란트과정)

치과교정, 심미보철, 임플란트, 치아미백, 사랑니발치, 스케일링, 잇몸치료, 충치치료

림플란트치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7동 1132 경동 유니온빌딩 6층

진료시간
평 일 AM 09:00 ~ PM 06:00
토 요 일 AM 09:00 ~ PM 01:00
점심시간 PM 01:00 ~ PM 02:00
공 휴 일 휴 진

상담전화 02.967.2228



불교총지중 본산 '총지사' 서원당



불교총지중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중.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서원합니다.

자성일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중보

총기 43년
2014년 4월 3일
음력 3월 4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범등(구창회)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8년 제173호

총지중 청소년 인성개발 프로그램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본격 가동

만다라청소년능력개발원 주관으로 중독예방 및 인성개발 프로그램 운영



▲ 2013년 총지중 청소년 한마음 캠프 (윤인=에버랜드)

불교총지중 중앙교육원에서는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과 함께 금년 4월부터 청소년 선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불교총지중 중앙교육원에서는 만다라청소년능력개발원(원장 화령 정사/현 불교총지중 중앙교육원장)을 설립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프로젝트로 청소년들을 흡연, 알코올, 게임 등 각종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생활의 정상적인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추진한다. 만다라청소년능력개발원은 우선 한성대학교 중독예방연구소와 연계하여 서울시내 초·중·고 1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중독 예방 사업을 시행하고 아울러 각종 통합예술교육프로그램을 응용하여 부적응 내지는 문제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순화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유도하면서 나아가서는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최근 청소년들의 흡연이나 음주 경험이 초등학교 4학년부 터 시작되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흡연이나 음주 경험의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이나 왕따 문제에 까지 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예방교육과 선도 문제가 교육계의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 이때에 불교총지중에서 이러한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원하는 것은 청소년 선도사업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만다라청소년능력개발원은 이 밖에도 대안학교를 포함한 서울 시내 7개교에 통합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적응 내지 문제 청소년들을 훌륭한 청소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거나 청소년기의 과

도한 에너지의 분출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적이고 감성적인 집단상담기법을 응용하여 이들이 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이다. 만다라청소년능력개발원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명상이나 요가, 드라미치로, 각종 예체능 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안에 감춰진 능력을 개발하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만다라청소년능력개발원 원장 화령 정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즐겁고 보람찬 학생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은 불교의 근본정신에도 합치하는 뜻 깊은 사업으로서 향후 이 사업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만다라청소년능력개발원이 중독 예방이나 집단상담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문제학생의 개별 상담으로까지 확대되어 청소년 선도사업에 있어서 불교계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종단 내외의 폭넓은 지지를 기대했다.

총지중에서 시행하는 이러한 사업은 이미 타종교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분야로서 불교계는 미처 충분히 눈을 돌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금번에 총지중에서 이러한 사업에 착수한 것은 불교계로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향후 청소년 포교의 대안으로 부상할 것이 예상된다.

중앙교육원=배공주 기자

총지중 전국사원 상반기 49일 불공 회향 국태민안과 자녀를 위한 불공에 용맹정진

지난 2월 19일 입제한 전국의 총지중 교도들은 지난 49일 동안 스승과 함께 나라의 안녕과 자녀들을 위한 불공에 정진한 전국의 사원에서 4월 8일 일제히 회향한다.

불교총지중만의 특별한 의례로 진행되는 49일 불공은 『진호국가불사』로 그 기원은 멀리 신라 명랑법사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진호국가불사』의 진언은 '용흥야호사'이다.

이 진언불사 출처는 종조 원정 대종사가 밀교경전인 '수호

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했다. 이 불사의 주요 서원사항은 나라발전, 국태민안, 조국평화통일이다. 매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49일 동안 봉행한다. 지난 총기20년(1991년)부터 종령 특별 유시로 자녀가 잘 되어 나라의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한 자선 불공이 추가되었다. 이번 회향일의 의미는 부처님오신날이 음력 4월 8일이지만, 종단은 이를 양력으로 정하여 4월 8일에 마친다. 하반기 49일 불사는 5월 28일 입제하여 7월 15일까지 봉행된다.

통리원=장동욱 기자

총지중 법등 통리원장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 임명식



▲ 한일불교문화교류협 사무총장 임명장을 수여하는 회장 자승스님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스님, 교류협)는 총지중 통리원장 법등 정사의 사무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3월 12일 오전 9시30분 조계종 총무원 4층 집견실에서 거행했다.

교류협 이사장 도산 스님(태고종 총무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자승 스님은 신임 사무총장 법등 총지중 통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교류협 회장 자승 스님은 "최근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로 양국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한일 양국 불교계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역할에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며 한일 불교 우호 발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교류협 이사장 도산 스님(태고종 총무원장)도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에 임명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꾸준히 추진 되어온 양국간의 교류 협력을 한차원 높이는데 같이 노력합시다."며 임명을 축하했다.

법등 신임 교류협 사무총장은 "조속한 시일내 이사회를 개최하여 현안을 처리하고, 6월 9일부터 일본 큐슈 젠도 우지(善導寺)에서 열리는 제35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를 앞두고, 4월 중순 이사장 도산 스님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행사의 세부 내용을 사전 정리 할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해 교류협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며 교류협의 현안과 취임 각오를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김종열 기자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쥐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제(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제83회 춘계강공회

교화와 종단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춘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의 스승님들께서는 수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개강식 총기 43년 4월 16일(수)

회향식 총기 43년 4월 18일(금)

| 장 소 | 불교총지중 통리원

| 대 상 | 종단산하 전 스승님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불교총지중 중앙총의회 의장 대원 대정사 1주기 추선 불사

3월 15일 부산 관음사에서 교도 및 스승 300여 명 동참



▲ 대원 대정사 열반 1주기 추선불사(부산=관음사)

불교총지중 중앙총의회 의장 대원 대정사 열반 1주기 추선불사가 부산 관음사에서 봉행 되었다. 총무부장 인선 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된 1주기 추선불사에는 법등 통리원장, 수현 중앙총의회 의장, 법상인 사감원장, 화령 중앙교육원장 등 종단 주요 소임 스승과 전국의 신도 300여명이 동참 했다.

총지중 전통의례에 따라 진행된 추선불사 에서는 생전 자상한 모습으로 교화를 이끌어가시던 대원 대정사의 떠올리는 많은 교도들이 눈물을 보였다.

관음사 주교 정인화 전수는 인사말 에서 “오늘 동참해 주신 전국의 스승 님과 교도여러분에게 가족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원정사님의 뜻을 받들어 교화발전에 더욱더 매진 하겠습니다.”며 인사의 말씀을 전했다.

대원 대정사는 1948년 생으로 경북 영천 출신이다. 1976년 영남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하고 충기 26년 덕화사 주교 근무를 시작으로 사회부장, 원의회 의원, 전당건설위원, 재무부장, 정각사 주교, 제10대 중앙총 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3월 15일 열반에 들었다.

부산=김종열 기자

정각사 통신원 뉴스

새봄을 맞은 정각사의 다양한 뉴스를 통신원이 전해왔습니다. 사원 앞 마당의 꽃들이 화사한 봄 기운을 뿜어내고, 서원당의 용맹정진은 깊어만 갑니다. 통신원들이 발로 뛰어 취재한 기사와 사진을 편집위원회가 정리했습니다.

교도 이름표 달기 운동



▲ 교도 이름표를 착용한 정각사 신정회 신인록 회장

정각사 신정회(회장 신인록)는 교도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방안으로 이름표달기 운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법회와 행사 등에 함께 동참 하면서도 서로 이름을 몰라 당황해 하는 경우가 있었다.

신정회는 세미나 목걸이형 이름표를 제작하여 교도들이 법회와 사원 행사 때 착용하여 서로 이름을 익히도록 하였다. 반응을 놀라웠다. 정각사에서 20여 년간 진언 수행을 했다는 한 노 보살님은 “비슷한 동년배로 나이와 이름은 알아도 젊은 교도들의 이름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름표를 착용한 후에는 서로 이름을 불러 더욱 친근한 사이가 된 느낌입니다.”며 이름표 착용 소감을 밝혔다. 신정회는 사원에서의 모든 불공과 행사가 이름표 달기를 계속해 모두가 한 가족처럼 돈독한 신심을 꾸려가기로 했다.

정각사=통신원 김정애

새로운 서원당에서 용맹정진의 원을 다지다.

실지사 서원당 본존불사 및 이설불사 봉행 이설불사 회향으로 불우이웃돕기 백미 100Kg기탁



▲ 이설불사를 마치고 한자리에 모인 실질사 교도들

충기 43년 3월 11일 서울 경인교구 실질사(주교 법우 정사) 신축 서원당 본존 불사가 봉행되었다. 통리원장 법등 정사,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 총무부장 인선 정사, 재무부장 우인 정사 및 서울 경인교구 스승 및 신정회 김은숙 지회장, 실질사 신정회 인명화회장 등

이 동참했다. 총지중 의례에 따라 봉행된 법회에서 실질사 주교 법우정사는 “이 본존이 오래 보존 되어 좋은 환경과 인연자가 많이 동참하여, 실질사 교화가 더욱 발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서 일체 중생들을 행복으로

이끌기를 삼보전에 발원하옵니다.”며 발원문을 봉독했다. 법회에 앞서 범우정사와 인지심 전수는 동참하신 스승과 교도들에게 “지난43년 동안 이어온 실질사의 법등을 교도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새로운 서원당을 신축하고, 본존을 봉안하게 되어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의 가지력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건축 기간 동안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항상 불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불공으로 공덕을 베풀어주시는 법등 통리원장님과 교구 스승님 그리고 교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고 인사말을 했다.

3월 16일에는 실질사 교도 100여명이 동참한 이설불사가 봉행되었다. 실질사 교도들은 40여 년 간 법등을 이어온 실질사의 새로운 출발을 환영하였다.

실질사 신정회장 인명화 회장은 “실질사 신축으로 이설불사를 봉행하게 된 것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불은 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축 이전 불사가 원만히 회향 하도록 정성으로 염송정진해주시는 실질사 교도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며 이설 불사의 소감을 밝혔다. 실질사 신정회는 이설 불사를 기념하고 나눔의 보시행을 실천하기 위해 송정동 주민센터에서 금영현동장에게 불우이웃돕기 백미 20Kg 5포대를 기탁했다.

실지사=통신원 홍정숙

교도 휴게실 오픈



▲ 새로 단장한 교도 휴게실

정각사 신정회(회장 신인록)는 교도들이 불공의 피로를 풀고, 차담을 나눌 수 있는 휴게실을 새로이 문을 열었다. 정각사 1층 강당에 마련된 교도휴게실에는 원형탁자, 쇼파 등이 놓였고 차담을 나눌 수 있는 시설을 완벽했다. 정각사 신정회 신인록 회장은 “정각사 신도 휴게실 오픈으로 연세 드신 교도들이 불공을 마치고 잠시나마 편히 쉬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가지력을 베풀어 주신 비로자나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휴게실을 이용하는 교도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불편이 없는 휴게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며 휴게실 오픈의 의미를 말했다.

정각사 신정회는 교도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계속 도입 발전시킬 계획이다.

정각사=통신원 한정애

신정회, 합창단 전직 간부 합동 간담회



▲ 전직 간부 합동 간담회

정각사(주교 룡경정사)는 3월 11일 신정회, 합창단 전직 간부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주교 룡경 정사, 범수연 전수, 묘흥 전수와 신정회, 합창단 전직 간부 2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각사 교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동참한 전직 간부들은 오랜 시간 정각사에서 수행생활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도간의 소통의 기회 확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화합된 사원 운영에 관한 의견들을 나누었다. 정각사= 통신원 이상록

부산 연등회 홍보부스 운영

정각사 주관으로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용두산 공원

불기2558년 부산불축행사 주요일정

행사명	일시	장소
연등문화재 개막 점등식	4월18일 오후7시	용두산공원
대형장엄등 전시회	4월 18-27일	용두산공원
창작등 및 행렬등 전시	4월18일-27일	용두산공원
전문문화체험마당	4월18일-27일	용두산공원
한일불교문화교류회 여성부 만발공양	4월 20일 오전 11시	용두산공원
불축연합대법회	4월 26일 오후4시	구덕운동장

총지중 부산 정각사(주교 룡경 정사)는 불기2558년 부산 연등제 주행사장인 용두산 공원에 종단 홍보부스를 설치 운영한다.

정각사 주교 룡경 정사는 “불기2558년 부산 불축 연등제의 주 행사장인 용두산 공원에 종단 홍보부스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통불교 총지중의 생활불교, 진언불교의 교리와 내용을 일반 불자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기회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각사를 중심으로 교도들이 힘을 합쳐 홍보에 전력을 다할까 합니다.”며 부스 운영의 열의를 밝혔다.

이번 홍보부스에서는 총지중 중앙교육원과 법장원에서 발행한 종단 교리 및 홍보 관련 책자전시 및 보급, 전통 차 나눔 공양, 아동 간식제공 등을 할 계획이다.

홍보부스의 운영은 4월 18일 오후 7시 부산 연등축제 점등식을 시작으로 문을 열어 4월 26일 불축 연등 행렬 회향 법회 시까지 운영된다.

부산=정각사 김윤경 통신원

다함께 배우는 찬불가 교실



▲ 찬불가를 지도하는 박윤규 지휘자

정각사는 교도 및 합창단이 한 달에 한번 함께 찬불가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만다라 합창단 지휘자 박윤규 선생의 지도하에 “오늘은 기쁜 날”을 한 소절씩 배우고 깊은 신심으로 열창 하였다.

이날 찬불가 교실에 동참한 보살님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와 웃음이 가득했다. 바쁜 일정에도 기꺼이 찬불가 강습에 나서준 박윤규 합창단 지휘자는 “정각사 교도님들의 신심으로 부르는 찬불가는 언제나 감동으로 다가 옵니다. 최선을 다해서 쉽고 빠르게 찬불가를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며 소감을 밝혔다.

정각사= 통신원 김윤경

환당대종사 특별법문

生活佛敎와 密敎

환당(歡堂:1911-1994)대종사



여강 이씨. 속명은 원재(源載). 경북 영일군 기계면 오덕리에서 출생. 원정대성사를 보필하여 불교총지종의 창종과 발전에 기여했으며 1986년부터 종령에 추대되어 1993년 입적 때까지 법장원장과 중앙교육원장을 겸임했다. 저서로는 《불교총진》, 《정통밀교》와 《종조법설집》 등을 편찬했으며, 총지종의 소의 경전인 《대승장엄보왕경》,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 그리고 준제관음법의 근거가 되는 《현밀원통성불심요집》 등을 번역했다.

불법공부를 잘하면 곧 세상일을 잘하는 사람

저는 밀교요 생활불교가 장차 우리나라의 주된 종교가 될 뿐 아니라 장차 전 세계의 으뜸가는 종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육대(六大)·사만(四曼)·삼밀(三密)을 체(體)와 상(相)과 용(用)으로 하는 법신비로자나부처님을 모시고 생활 속에서 법신당체설법(法身當體說法)을 체득하여 재가·출가를 막론하고 이 사회 각계 각층에서 자기가 깨친 진리를 우리의 실생활에 활용하여야만 합니다. 인지(人知)의 발달과 시대의 변천에 따라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다만 형상에 국한된 불상에만 귀의하지 않고 우주만유와 허공법계를 다 부처로 알아서 세상사와 경전이 따로 있지 아니하고 승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 세상일을 잘해내면 그것이 곧 불법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불법공부를 잘하면 곧 세상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생활불교의 본령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공하는 법도 불공할 처소와 그 대상인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떠한 곳에서라도 삼밀행과 회사로서 불공하면 불공하는 이의 일과 원(願)에 따라 그 불공하는 처소가 법당이 되고 그 자리에 부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법신대일여래 부처님은 없는 곳이 없으며 곳마다 법당이요, 일마다 불공이 되는 것으로서 이야말로 처처불공(處處佛供), 사사불공(事事佛供), 시시불공(時時佛供)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법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이것을 일러 사력법(四力法)이라고 합니다.

사지사력(四智四力)활동으로 생활 중에 깨쳐야

사력법의 첫째는 복지전수요(福智專修), 둘째는 사리필구(事理必求)이며, 셋째는 생활취사(生活取捨)요, 넷째는 결과내증(結果內證)입니다. 첫째 복지전수라는 것은 삼밀행과 회사로서 복덕과 지혜를 부지런히 닦는 것이며, 둘째 사리필구라는 것은 자기에게 닦쳐오는 모든 일에 대한 이치를 연구하고 판단하여 보는 것이며, 셋째 생활취사라는

것은 공사 간의 생활 모든 일에 선악시비와 선후분말을 취사하여 행하는 것이며, 네번째의 결과내증이라는 것은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의 공사손익과 그 인과를 증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를 실행하면 모든 서원이 만족하여 복지구족하게 되며 현세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실천 강목을 행하는 것이 곧 교리행과(敎理行果)가 되는 것이며 생활밖에 불법이 없고 불법밖에 생활이 없는 세계적 큰 불교가 될 뿐 아니라 현세안락과 구경성불의 대도도 모두 이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신대일여래의 체·상·용 즉, 본질과 능력과 작용은 육대·사만·삼밀로서 모든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요, 활동하는 경전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멸 없는 그 진리는 인과로서 나타나니 사지사력(四智四力)활동으로 생활 중에 깨쳐야 하는 것입니다.

연마하여 이에 대비하면 물심양면에 여유가 작작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곧 빈천과 우둔을 물리치는 우리생활의 지중환 보배가 될 것이요, 증생을 제도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좋은 약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오래오래 연마하여 가면 죄를 단련하여 강철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지해도 금강과 같이 굳세게 되어 마음에 자주가 서고 정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리필구라함은 일체의 대소유무와 흥망성쇠 및 생로병사 등 모든 일과 이치를 반드시 연구하고 판단함을 이룸이니 우주나 넓은 만큼 삼라만상의 모든 사물도 한이 없고 사상의 종류도 수가 없으며 인간이 많은 만큼 일의 종류도 한이 없습니다. 우리를 공사간의 생활 가운데는 일체 크고 작은 일에 반드시 그 선악화복과 이해장단(利害長短)과 사정진위(邪正眞僞)가 있는 것이어서 우리들은 매양 일을

셋째, 생활취사라 함은 우리들의 공사 간 생활가운데 취해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니 우리들의 생활 중 모든 사물에는 반드시 선후, 시비, 본말, 장단, 선악, 사정(邪正), 길흉화복 등과 이해득실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써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전화위복의 현명한 지해도 있고,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치도 있으며,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의도 있고, 병공영사(憑公營私)의 불의도 있으며, 이타자리의 자비도 있고, 해타자리의 죄악도 있으니 어찌 취사선택을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비록 정진력을 얻고 사리에 연구판단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일에 당하여 실행하지 못하면 정진과 연구가 수포로 돌아갈 뿐이요 실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까닭입니다.

무릇 우리인간은 대개 두 가지의 약점이 있습니다. 나쁜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약점과 좋은 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약점입니다. 이것은 곧 불같은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철석같이 굳어진 애착과 습관에 이끌리고 끊어버리는 용단이 없어서 인락한 낙원을 곁에 두고 험악한 고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취사법을 항상 행해 들어가면 모든 일을 당할 때에 정의는 옹행 있게 취하고 불의는 용기 있게 버리는 실천력을 얻는 것입니다.

사지사력(四智四力)을 행하는 것으로 현세안락과 구경성불의 대도를 이룬다

사력법(四力法)의 실제

이상의 사력법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복지전수라 함은 삼밀과 회사로서 정진수행하여 복덕과 지혜의 두 문을 열어 닦아가는 것이므로 이 두 가지가 구족한 것을 양족(兩足)이라 하며 부처님을 양족존이라 하는 것도 복지전수가 곧 성불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유하면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어느 하나도 부족하면 안 됨으로 복지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만사는 반드시 인·연·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요행과 우연히 있었습니까?

무심히 지은 인에 돌연히 그 과를 받을 때에는 누구나 다 당황 낭패하기 쉬우므로 항상 미리 복을 짓고 지혜를

당면할 때 대소유무의 이치를 판단 연구하지 아니하고 아집에 가리우고 탐진과 정애에 빠져서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지 못하여 항상 허망하고 요행한데 떨어져 결국은 실패나 패기망신의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헤엄을 못치는 사람이 고기만 보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도로 나오지 못하고 빠져죽는 것과 같은 것이니 어찌 번뇌탐욕의 바다를 겁내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사의 다단한 이치를 미리 연구하였다가 실생활에 다다라서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처리하게 되면 일에 대한 신념과 두서가 있어서 기필코 성공함은 물론이요 사반공배(事半功倍)의 결과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사물에 대한 판단력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결과 내증이라 함은 자기가 행한 일체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 그 결과를 체득하고 인과를 내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일이라도 인과법칙을 벗어나는 것은 없으니 그 결과를 보고 그 원인을 깨쳐가는 종과향인(從果向因)의 밀교본래의 법칙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위의 모든 지혜를 총체적으로 각득하는 성소작지(成所作智)로서 일체사물에 대한 실각지(實覺智)를 이루게 되는 것이니 일체법의 체험자가 곧 부처인 것입니다. 여기에 권실이지(權實理智)의 단련이 있고 즉신성불(卽身成佛)의 직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충기 16년 (1989) 7.17

- 교훈 : 신의·성실·정직
- 교목 : 보리수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충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충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준제다라니경’ 에 근거한 『준제관음보살상』 조성 봉안

한 · 중 · 일 자료를 보완 감수, 6개월의 제작기간을 거쳐 완성

불교총지종 법장원에서는 본 종단 최초로 준제보살상을 조성하여 보존하기로 했다. 준제보살은 본 종단의 주된 의례인 준제법의 주인공이 되는 보살로 《칠구지불모대준제다라니경(七俱胝佛母大准提陀羅尼經)》 《칠구지불모준제대명다라니경(七俱胝佛母准提大明陀羅尼經)》 《칠구지불모소설준제다라니경(七俱胝佛母所說準提陀羅尼經)》 등 관련경전에 의거하여 그려졌다. 관련경전과 의례법에 따르면 준제법을 행할

때는 준제상을 앞에 놓고 의례를 행하는 것이 공덕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용으로 준제도상을 조성 한 것이다. 법장원에서는 정확한 준제상을 그리기 위하여 시중의 여러 가지 준제도상을 비교한 결과 잘못된 점이 다수 있는 점을 발견하고 관련 경전을 참고하여 정확한 도상을 그려냈다. 준제보살상 제작을 지도, 감수한 화령 중앙교육원장에 따르면 정확한 도상을 그리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준제보살상은 물론 중국과 일본의 도상을 참고한 결과

준제다라니경에 의거한 여러 가지 형상과 태장계만다라에 나타난 준제상의 각종 변형이 있음을 확인하고 기존 도상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았다.

이번에 법장원에서 그린 준제보살상은 3종의 준제경에 의거하여 삼목십팔비(세 개의 눈과 18개의 팔)를 기준으로 그린 것이다. 준제보살상에 대한 연구와 구상 그리고 작업을 완성하기까지 6개월이 걸렸는데 이번에 완성된 준제보살상은 국내외의 준제보살상 제작에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총지종에서 새로 조성한 준제관음보살상

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7억이나 되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준제보살님, 모든 곳에 두루하시며 온 우주에서 가장 높고 가장 청정한 신분이시여! 저에게 지혜와 자비를 주시고 모든 것이 성취되게 해 주소서.

준제보살과 준제진언

준제보살은 준제관음, 혹은 준제불모(準提佛母)라고도 하며 불모준제(佛母準提), 준지불모(准胝佛母), 칠구지불모(七俱胝佛母), 존나불모(尊那佛母)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음사된다. 원래의 갖춰진 이름은 칠구지불모준제대보살(七俱胝佛母準提大菩薩)이라고 한다. 산스크리트로는 Saptakoṭibuddhamātrka Cundī 라고 하는데 한문으로 음사하면 ‘칠구지불모준제’가 된다. 이것은 7억 혹은 7천만이나 되는 많은 부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뜻이다. ‘구지’라는 말은 koti의 음사로서 천만 혹은 억을 의미하는데 무수히 많다는 뜻이다. 따라서 칠구지불모준제라고 하면 준제보살로부터 무수한 부처님이 출현하셨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준제보살은 말이 보살이지 실제로는 온 우주의 으뜸이 되는 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준제불모로 불리었다가 사람들과의 친근감을 더하기 위하여 준제관을 혹은 준제보살로 부르게 된 것이다.

준제보살의 모습은 세 개의 눈과 열여덟 개의 팔(三目十八臂)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외에도 이비(髻), 사비, 육비, 팔비, 십육비, 삼십이비, 사십팔비, 팔십사비 등의 각종 모습이 있으나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삼목십팔비의 형상이며 나머지는 도상으로 나타난 것이 흔치 않다. 준제보살의 팔이 많은 것은 관음보살과 마찬가지로 무한한 지혜와 중생구제의 방편을 두루 갖추고 있음을 상징한다.

태장계만다라 안에서는 변지원(遍知院)의 가장 왼쪽에 위치하며 준제다라니경에 나타난 준제상과는 모습이 많이 다르다. 각각의 손에 든 지물의 순서도 다르고 모양도 차이가 난다. 밀호(密號)는 최승금강(最勝金剛)이며 몸은 백황색이고 붉은 연화 위에 앉아계시는 것으로 묘사된다.

준제보살의 진언은 나무 사다남 삼막삼따 구치남 단나타 음 자레주레준제 사바하(namah saptānām samyaksambuddhakoṭīnām tadyathā om cale cule cundi svāhā)로서 그 의미는 ‘칠구지의 정등각자에 귀명합니다. 음! 어느 곳이나 계시는 분이시여, 가장 높으신 분이시여, 가장 청정한 분이시여, 사바하’라는 의미가 있다.

《칠구지불모대준제다라니경》 등의 관련경전에 의하면 의하면 준제다라니, 즉, 우리가 ‘준제진언’이라고 부르는 준제보살의 진언은 이를 염송하면 일체의 죄업을 소멸하고 수복(壽福)과 지혜가 늘어나며 모든 불보살이 보호하여 세세생생 악도(惡道)에 떨어지지 않으며 무상보리(無上菩提)를 증득한다고 하여 그 공덕이 무량함을 설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불공(不空)삼장이 번역한 《칠구지불모소설준제다라니경》에서는 ‘만약 진언행을 닦는 출가와 재가의 보살이 이 다라니를 수지독송하여 90만번을 채우면 무량겁 동안에 지은 십악과 사중, 오무간죄를 모두 소멸하며 태어나는 곳마다 재물보살을 만나고 재보가 풍요로우며 출가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설하고



▲ 태장계 만다라 변지원의 준제불모

있다. 또한 ‘출가한 보살일 경우에는 모든 계율을 잘 지키게 되고 삼시에 가르침대로 수행하면 현생에서 바라는 바의 출세간의 일이 이루어지고 삼매와 지혜가 나타나며 십바라밀을 증득하고 무상정등보리를 속히 원만하게 증득한다’고 설하고 있다. 이처럼 준제진언은 그 공덕이 세간 출세간을 막론하고 무공무진하며 마침내는 무상보리를 얻는다고 하고 있을 만큼 공덕이 큰 진언이다.

이 진언을 외을 때에는 항상 준제상을 앞에 놓고 준제결인을 한 다음 이렇게 생각하고 외우는 것이 공덕이 크다.

‘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7억이나 되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준제보살님, 모든 곳에 두루하시며 온 우주에서 가장 높고 가장 청정한 분이시여! 저에게 지혜와 자비를 주시고 모든 것이 성취되게 해 주소서.’

화령정사 / 철학박사 · 중앙교육원장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일원 어린이집



· 맑고 밝은 어린이 · 자율적이며 더불어 함께 크는 어린이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 · 이웃, 나라,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일원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건강하고 지혜롭고 예의바른 초록반 어린이들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강남구 현릉로 590길 63 리엔파크 5단지 아파트 관리동 1 층
문의: 02-445-2326



신라 고분의 비밀 ‘天馬, 다시 날다’

천마총 출토 유물을 통해 본 신라의 화려한 궁중 문화

신라시대의 화려한 고분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인 천마총 유물 특별전이 열린다. 우리에게 천마도와 금관으로 유명한 천마총은 그 발굴의 의미가 남다르다. 적석목곽분인 황남대총 발굴을 위한 경협을 쌓기위한 시험 발굴로 첫 삽을 뜬 고분이다. 본격에 들어가자 전 스파링 파트너로 선택했던 고분이 엄청난 유물 들을 쏟아 낸 것이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신라능묘 특별전의 세 번째 전시로 경주 천마총을 주제로 한 ‘天馬, 다시 날다’를 3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개최한다.



▲천마총 및 대릉원 전경

1973년 경주 천마총 발굴

경주 대릉원에 자리한 천마총은 1973년 발굴 당시 신라 고유의 돌무지덧널무덤 [積石木槨墳]으로만 추측하고 있었을 뿐, 제대로 된 이름도 없이 황남동 155호분이라는 숫자만이 부여된 무덤이었습니다. 이 천마총을 발굴하게 된 계기는 일종의 시험 발굴이었습니다. 1971년에 수립된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는 큰 고분을 발굴하여 그 내부를 복원해 공개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그 대상으로서 황남대총을 선택하고, 본격적인 발굴에 앞서, 인근의 규모가 작은 천마총을 시험 발굴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예상을 뛰어 넘는 것이었다. 광복 이후 처음으로 출토된 금관을 비롯하여 모두 11,526점이 출토되었고, 현재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만도 10건 11점이다.

말다래의 ‘천마’로 인해 천마총으로 명명



▲백화수피제 기마인물문 채화판 세부

신라시대의 귀한 회화 자료인 ‘천마’를 그린 백화수피제 말다래 [障泥]가 발견됨으로써 1974년 ‘천마총’으로 명명하였다. 그 후 1975~76년 무덤 내부를 복원하여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신라 능묘가 되었습니다. 경주를 방문하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 들리는 천마총은 봉분의 지름이 47m이며, 높이는 12.7m에 달합니다.

내부에 나무로 덧널(크기 6.6m×4.2m)을 설치하고 무덤 주인을 안치한 널(크기 2.15m×0.8m)을 넣은 다음, 덧널 위에 돌무지를 쌓고 흙으로 봉분을 쌓은 구조이다. 무덤 주인은 금관과 금드리개, 금귀걸이를 비롯한 화려한 장신구와 금동제 봉황장식 고리자루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또한 무덤 주인의 머리맡에 있었던 부장품 궤(크기 1.8m×1.0m)에도 온갖 보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맨 밑에는 큰 철술과 온갖 토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다양하고 독특한 형태의 칠기류, 유리와 금동·은·청동으로 만든 귀한 그릇들, 장식마구 등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천마문 말다래도 이 부장품 궤 안에서 발견된 것이다.

지면으로 보는 천마총 특별전

이번 특별전에서는 발굴한 지 41년 만에 국립경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천마총 출토품의 거의 전부를 공개하고자 하였습니다. 전시품의 수량은 136건 1,600여점이다. 이 가운데 국보와 보물이 모두 11건 12점(금령총 출토 기마인물형 주자注子 1점 포함)이다.

전시는 도입부를 시작으로 1부 ‘왕(족)의 무덤, 천마총’과 2부 ‘천마문 말다래와 장식 마구’ 그리고 종결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입부

당시 출토된 모습 그대로 복제한 목관을 전시하여, 천마총의 핵심인 매장 주체부에 대한 사전 이해를 돕는 한편, 무덤 주인공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제1부=왕(족)의 무덤, 천마총



▲ 금관(국보제188호)



▲ 용무늬가 있는 금동제 바리

천마총의 발굴에 따라 드러난 구조와 그 부장품에 대해 살펴보는 공간이다. 특히 전시관 중앙부에는 무덤의 주인이 안치된 널(목관)과 수많은 보물들이 가득한 부장품 궤를 당시의 모습에 가깝게 재현 전시하여, 관람객들이 금관을 비롯한 여러 부장품들의 출토 맥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널과 덧널 내외, 부장품 궤 등에서 나온 부장품들을 위치 별, 종류 별로 전시한다. 금관과 금허리띠 등 기존에 잘 알려진 출토품 외에도 다양한 전시품을 새로이 선보인다. 보존처리 과정에서 그 무늬가 새로 확인된 용무늬·봉황무늬 등을 새긴 금동그릇과 연꽃무늬와 넝쿨무늬가 금입사면 큰칼 등이 대표적이다.

갑옷의 일부인 금동제 팔뚝가리개와 붉은 색을 칠한 칠기 장판과 그 위에 올려진 은합, 금제 달개[瓔珞]를 장식한 굽다리긴목항아리도 원래의 모습에 가깝게 처리하여

전시했다. 검은 바탕에 붉은 칠로 세밀하게 그린 다양한 칠그릇, 달갑을 넣었던 장군과 그것을 담아 두었던 쇠술도 전시된다.

제2부=천마문 말다래와 장식 마구



▲백화수피제 기마인물문 채화판 세부

천마문 말다래를 중심으로 장식 마구들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즉제 천마문 금동장식 말다래 1점과 백화수피제 천마문 말다래 2점(1쌍)을 처음으로 모두 전시한다. 또한 ‘천마도’와 함께 주목을 받았지만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기마인물문 채화판과 서조문 채화판을 처음 공개한다. 이러한 회화 자료들은 보존을 위하여 조도 80릭스 이하를 유지해 전시하고, 전시 기간도 다음과 같이 제한하여 공개한다. 1차 공개: 3월 18일 ~ 4월 6일, 2차 공개: 4월 29일 ~ 5월 18일, 3차 공개: 6월 3일 ~ 6월 22일 이다.

보존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사람 얼굴이 표현된 금동투조장식 안장앞가리개도 처음 전시됩니다. 말다래를 비롯한 마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령총 출토 기마인물형 주자(국보) 등도 특별히 함께 전시한다.

또한 관람객들이 백화수피제와 즉제 천마문 말다래들을 모니터 상에서 자유자재로 이동 확대 축소하며 세부를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 돋보기를 운용한다. 1973년 발굴 당시 말다래 등 중요 부장품들을 수습하는 생생한 장면의 영상도 발굴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

※종결부

종결부에서는 천마총 조사단원의 사진 등 관련 사진과 기록물, 발굴보고서 등을 전시했다. 그리고 박물관에서 천마총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며 ‘천마’가 다시 날아오기를 소망하는 글로 전시를 마무리한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이번 특별전이 신라 능묘, 나아가 신라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크게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천마총 특별전 ‘天馬, 다시 날다’는 7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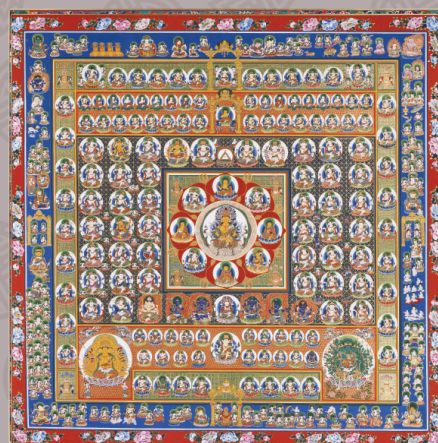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 전화문의 _ 불교총지중 통리원 02) 552-1080
각 사찰 주교님께 문의하셔도 구입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_ 우리은행 1005-480-047811
(재) 불교총지중 유지재단

1. 만다라 세트 (금강계 만다라 +태장경 만다라)

33cm X 33cm (액자포함)
30,000원



태장경 만다라 _ 服藏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정확하게는 '대비 태장생 만다라'이다. 대일경에 근거해 그려진 이 만다라는 태이가 모태 속에서 생육되어 가는 것에 비유해 대일여래의 보리심이 모든 생성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금강계 만다라 _ 金剛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서만다라고도 하는 이 만다라는 '금강정경'에 근거해 그려졌다.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2. 가정다라니

46cm X 27cm (액자포함)
27,000원



가정다라니

밀교연재 **깨달음의 세계 · 불보살의 도량, 법경정사의 만다라 이야기 (2)**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

만다라의 뜻과 구조

1. 만다라의 뜻

만다라(曼荼羅)는 산스크리트 Mandala를 한문으로 소리나는대로 옮긴 말이다. 만다라의 뜻은 '본질(本質), 정수(精髓)를 얻는다'이다. '본질(本質), 정수(精髓)'를 뜻하는 Mandala에 '얻다, 소유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의 la가 합해진 말로서 '본질을 갖춘 것' '본질의 구현' '모든 법을 구축한 것'이란 뜻이다. 다시말해서 '일체제법(一切諸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함'을 나타낸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인가,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즉 성불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만다라는 불보살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일체제법(一切諸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부처와 그 경지를 추구하는 보살과 그들의 무수한 권속들이 모인 잠엄한 도량이 만다라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도상만다라(圖上曼荼羅)다. 총지종의 사원의 서원당 정면에 모셔진 태장계·금강계만다라가 대표적이다.

만다라- '본질(本質), 정수(精髓)를 얻는다'는 뜻... 단(壇)·도량(道場)·윤원구족(輪圓具足)·청정(淸淨)·취집(聚集)·원(圓)·구(球)·발생(發生) 등으로 번역.

한역(漢譯)에서는 Mandala를 '단(壇)·도량(道場)·윤원구족(輪圓具足)·청정(淸淨)·취집(聚集)·원(圓)·구(球)·발생(發生)' 등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있다. 이 같은 번역은 산스크리트의 어원해석을 바탕으로 한 『대일경소(大日經疏)』의 주석에 따른 것이다. 이 주석서의 해석 가운데 윤원구족(輪圓具足)과 같은 말은 부처의 자내증(自內證), 즉 자기의 마음 속에서 깨달은 경지, 진리의 세계를 표현한 말이다.

만다라가 단(壇)의 의미로 쓰인 경우는 밀교의 모든 수행법이 단(壇) 위에 만다라를 건립하고 그 가운데서 호마단(護摩壇)을 세워 불을 태우고 공양물을 올리는 의식이 진행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단(壇)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만다라가 도량(道場)으로 쓰이는 경우는 모든 의식이 성스러운 곳에서 진행되므로 도량이라 이름 붙여진 것이다. 도량은 깨달음의 자리, 깨달음의 단상(壇上), 깨달음의 장소를 가리키며, 수행·수법(修法)을 하는 장소로 절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만다라가 펼쳐져 수계관정과 호마법, 공양법 등이 행해지는 그곳은 그자체가 도량이다.

윤원구족(輪圓具足)은 보름달처럼 둥근 원이 가득 차 있다는 의미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음을 뜻한다. 원(圓)안에 불보살이 충만해 있음을 말한다. 원(圓)으로 그려진 만다라 속에는 수많은 불보살이 자리잡고 있다. 본질이 구축하다는 것으로 진리의 충만(充滿)을 나타낸다. 진리의 세계가 곧 만다라이며, 그 상징이 원(圓)이요

윤원구족(輪圓具足)이다.

또한 만다라는 청정(淸淨)을 의미한다. 깨달음의 세계는 청정하다. 그 도량은 청정무구(淸淨無垢)의 세계다. 불보살의 세계, 보름달처럼 윤원구족한 만다라 속에는 이미 청정함을 간직하고 있다. 실제로 만다라가 펼쳐지는 성스러운 도량에 속됨을 막고자 성(聖)과 속(俗)의 경계(境界)를 구분짓는 봉이나 막대기를 설치하기도 한다. 이를 금강괘(金剛槩)이라 한다.

만다라는 취집(聚集)을 뜻한다. 무리를 지어 모여 있다는 의미다. 부처님과 보살, 여러 천신들이 순서대로 군(群)을 이루고 있다. 이를 불보살의 취집이라 한다. 만다라가 불보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취집은 당연한 표현이다.

또 원(圓)·구(球)를 의미한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윤원구족(輪圓具足)의 둥근 원(圓)이 곧 만다라라고 했다. 이를 입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구(球)이다. 그러므로 둥근 공은 곧 만다라이다. 이러한 교리적 배경 위에서 만들어진 총지종의 상징물인 원상(圓相)은 만다라의 다른 이름이요 입체적인 만다라이다. 이와 같이 원(圓)을 바탕으로 종교적 상징물로 삼은 경우는 여러 종단에서도 보인다. 진각종의 상징인 대일상(大日相)인 그렁고, 원불교의 일원상(一圓相)이 그렇다. 또 조계종단의 삼보륜(三寶輪)도 원(圓)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삼보륜은 둥근 원 안에 세 개의 둥근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삼보정정을 나타낸다. 둥근 원(圓)은 위에서 소개한 모든 종단에서 부처님을 표현한 것이다. 즉 만다라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다.

실제 만다라에서도 거의 모든 도형이 원(圓)이다. 태장계만다라가 그렇고 특히 금강계만다라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둥근 원이 아홉 개로 이루어져 있는 금강계만다라를 달리 구회만다라(九會曼荼羅)라고 부른다.

만다라는 발생(發生)을 의미한다. 중생의 보리심과 자비심을 발생시킨다는 뜻이다. 특히 태장계만다라는 마치 어머니의 자궁에서 아이를 잉태하여 기르듯이 중생들의 자비심과 발보리심을 발생시켜 성불의 단계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태(胎)는 아이를 배는 것을 말하고, 장(藏)은 품다, 간직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아이를 잉태하여 품는 것을 말한다. 중생에게 본래부터 함장되어 있는 불성(佛性)을 의미한다. 불성의 개현(開顯)이 곧 태장계만다라의 본뜻이요 구경(究竟)이다.

2. 만다라의 구조

일반적으로 만다라(曼荼羅)라고 하면 부처와 보살과 명왕들이 집단으로 그려진 그림을 연상한다. 그러나 형태상으로는 흙을 쌓아올린 단(壇)에 그 기원이 있다. 인도의 바라문교에서는 흙으로 단을 쌓고 그 단 위에 신상(神像)을 안치하거나 신상을 그려 신을 초칭하여 공양하는 수법(修法)을 행하였다. 이것이 밀교에 수용되어 토단(土壇)

위에 부처와 보살과 명왕들을 모시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만다라를 토단(土壇)으로 조성하는 전통은 오늘날 티베트 불교에서 볼 수 있는데 호마(護摩)라든가 공양(供養)을 올리는 밀교의식을 행할 때 토단의 만다라를 축성하고 흰가루로 선을 긋고 채색(彩色)하여 의식을 진행한다.

의식이 끝나면 흙으로 쌓은 토단을 허물어 버린다. 어렵게 조성한 토단만다라를 없애 버리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무상(無常)의 진리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의미다. 두 번째는 '해탈'의 진리다. 의식이 끝나면 만다라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다. 번뇌의 원인인 집착을 없애는 것은 곧 해탈을 의미한다.

흰가루로 선을 긋는 것은 청정한 도량의 결계(結界)를 뜻하고 채색(彩色)은莊嚴(莊嚴)을 의미한다.

궁전(宮殿)과 궁성(宮城)의 모방 형태, 서원과 수행, 깨달음의 과정을 묘사.

이와 같은 토단만다라의 전통과 구도(構圖)는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만다라의 도상(圖上)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만다라는 항상 중앙에 궁전(宮殿)과 성벽(城壁)과 성루(城樓), 성문(城門)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다. 이것은 고대인도의 왕성을 모방한 것이다. 그래서 중앙의 대일여래가 계신 곳을 '금강법계궁(金剛法界宮)'이라 부른다.

이러한 형태가 4세기 무렵의 밀교 선구경전(先驅經典)의

하나인 『금광명경(金光明經)』에 나타내는데, 동서남북으로 아축(阿闍)·보상(寶相)·무량수(無量壽)·미묘성(微妙聲)의 사불(四佛)이 등장하고 부처로부터 불법(佛法)의 수호를 부촉받은 사천왕(四天王)이 사방의 성문(城門)에 배치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또 『만야이취백오십송주(般若理趣百五十頌注)』에 의하면, 만다라의 제존(諸尊)으로 왕궁에 거주하는 왕(王)과 왕후(王后), 대신(大臣), 왕녀(王女) 등을 배대하고 있어 왕성의 모방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 수많은 불보살들이 공통되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서원과 수행, 깨달음의 과정을 묘사한 것으로 공능과 내용에 따라 도상(圖上)에 황으로 종으로 배열되어 전체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다. 즉 동일한 성격의 공능(功能)이 불(佛)→보살(菩薩)→명왕(明王)→천신(天神)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의 극치를 나타내는 본존불(本尊佛)을 중심으로 좌우, 상하의 균형을 이루면서 각각의 활동·효능·작용에 상응하여 모든 존상(尊像)들이 배열되어 있다. 전체와 개체가 유기적으로 작용하게끔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마치 수레바퀴가 빈틈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만다라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은 '모두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모두가 제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가르침을 당체법문(當體法門)으로 설하고 있다.

〈다음호에서 만다라의 종류와 존상(尊像)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총지사 본존과 양계 만다라. 본존의 좌측은 금강계만다라 우측은 태장계 만다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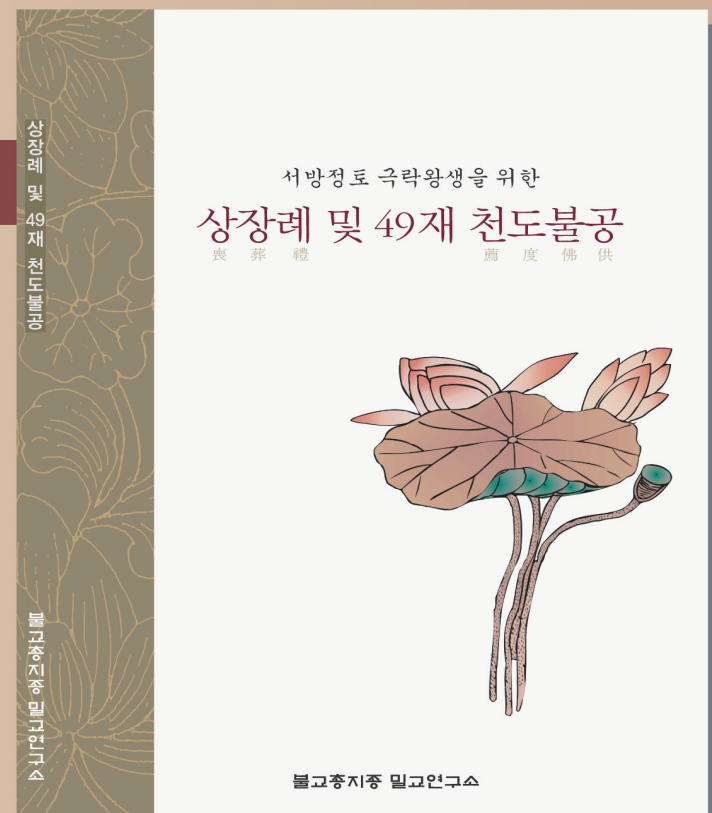
왜 천도불공을 올려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상장례와 49재의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서방정토 극락왕생을 위한 천도불공 안내서!

서방정토 극락왕생을 위한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공



- * 임종 시에 불공을 해드려야 하는 이유
- * 재(齋)란 무엇인가?
- * 49재의 의미, 유래와 근거
- * 49재를 행하는 이유
- * 49재는 어떻게 행하는가? (절차와 방법)



법공 종사 · 법경 대정사 共著
불교총지중 밀교연구소 발행 / 비매품 / 59쪽
구입문의 : (02) 552-1080~3

다시 읽는 우리시조

논밭 갈아 김매고

지은이: 신희문



논밭 갈아 김매고
 담뱃대엔 잎담배 피워 물고
 콧노래 부르면서 팔뚝 춤이 제격이라
 아이는 지화자 하니
 허허 웃고 놀리라

신희문(申喜文)은 조선 정조 때 사람으로 추정되며, 생몰 연대는 알 수 없다. 자는 명유(明裕)이고 14수의 시조가 대학본(大學本) 「청구영언」에 전한다. 작품의 내용으로 보아 산수간(山水間)에 은거(隱居)하며 농업을 주로 하던 숨은 가인(歌人)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고된 김매기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농부들이 담뱃대를 입에 물고 콧노래 부르며 팔뚝춤을 추는 모습을 묘사한다. 고된 농사일이지만 여유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농부들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 시대 농부들의 삶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농부는 군역과 더불어 세금을 내야 하는 주된 계층이므로 수확량의 많은 부분을 나라에 내야만 했습니다. 자칫 흉년이 라도 들면 수확량의 대부분을 세금 내고 나면 식구들은 배고픈 겨울을 나아만 했습니다. 그러나 농사일을 할 때만큼은 풍년을 바라며 낙천적인 성격으로 노동을 이겨 나가는 모습을 이 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편집·정리 = 편집위원회

VISUAL 불교총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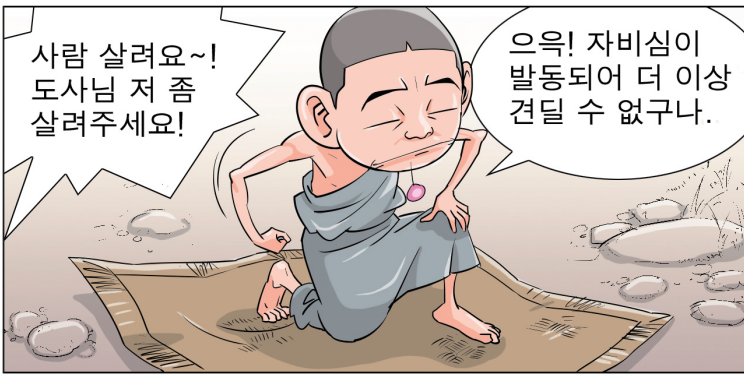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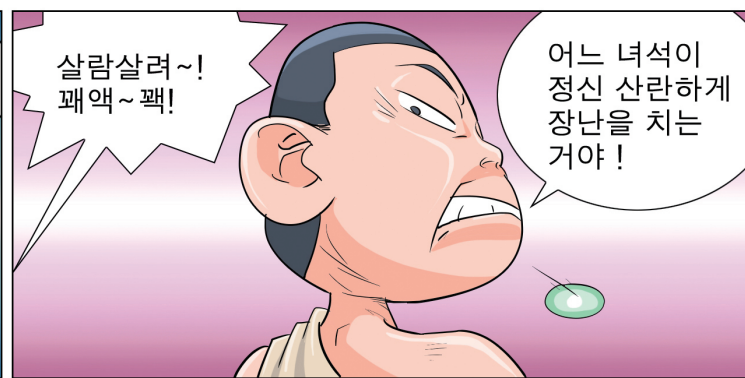
제58화

글/그림 정수일

http://www.drawing라홀라.kr

수행을 하는 도인

수행이 없는 도인



내용참조: "불교총론- 자기에 대한 덕의편" p320-18

유물로 보는 비로자나불

보물 제542호 홍천 물걸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洪川 物傑里 石造毘盧遮那佛坐像)

소재지: 강원 홍천군 내촌면 동창로153번길 34 (물걸리) 대승사

시대: 통일신라



▲ 제542호 홍천 물걸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대승사에는 통일신라 후기에 만들어진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외에도 석조여래좌상(보물 제541호), 불대좌 및 광배 4기가 있다.

머리에는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붙여 놓았으며 그 위로 상투 모양의 머리묶음이 크게 솟아 있다. 약간 고개를 숙인 얼굴은 풍만하지만 턱이 뾰족하여 단정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옷은 양 어깨에 걸쳐 입고 있는데 긴 장갑이나 탄력적인 모습이 사라진 채 다소 투박하고 무겁게 늘어진 모습이 역력하다. 옷주름은 어깨에서 두 팔을 거쳐 무릎까지 나타나 있으나 평행선으로 되어 약간 형식적으로 처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손은 오른손 검지를 왼손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일반적인 비로자나불이 취하는 손모양과는 반대로 되어있다.

불상이 앉아있는 대좌(臺座)는 8각 연화대좌로 상대·하대에는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고, 중대에는 부처에게 공양을 드리는 사람, 약기를 연주하는 사람, 향로 등이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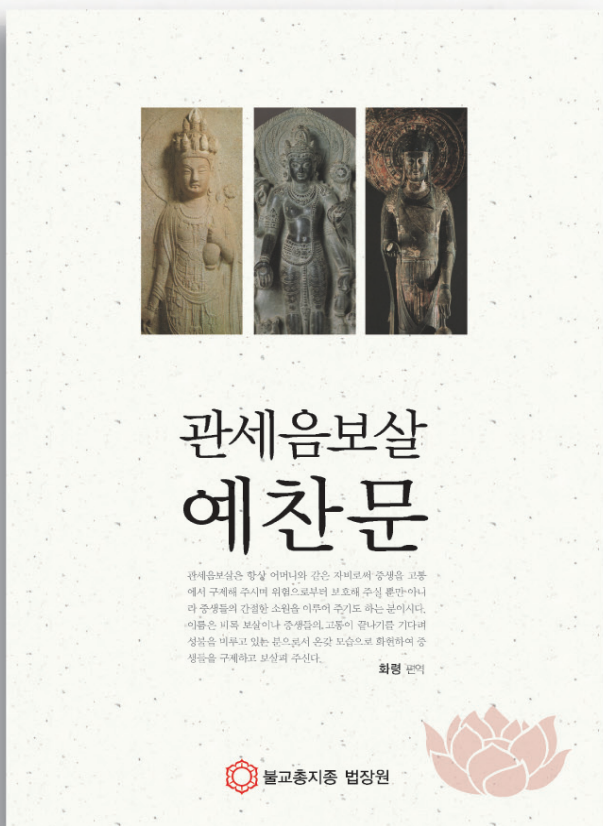
8세기 불상에 비해 양감이 없는 평판적인 신체, 긴장감이 사라진 무겁고 해이한 옷주름 등으로 보아 9세기 후반에 유행하던 비로자나불상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하겠다.

자료제공=문화재청

이 책을 읽으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저절로!!!

관세음보살 예찬문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문화하신 자비 광명 온누리 비추시네
무명 중생 괴로움 모두 살피사 빠짐없이 고통로 건져주시네”



화령 번역 | 불교총지중 법장원 발행
정가 15,000원 | 법보사가 8,000원 (10권 이상)

-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 관음경
- 천수경
- 신묘장구대다라니해설
- 관세음보살 관련 각종 진언
- 옴마니반메훔의 의미와 수행법

